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제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부흥케 하소서!

내일(23일)부터 25일(수)까지 본당에서

제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성령의 회복: 성경해석과 복음적 설교'라는 의미심장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준비된 소중한 강의를 경청하게 된다. 홍수와 지진, 그리고 기근 등 세기말적인 재난들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적인 진보와 환경적인 안정의 확보가 아니라 말씀의 바른 회복과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의 회복이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강단의 갱신, 곧 설교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세미나의 강의를는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평신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번 세미나의 주강사로 초빙된 강사들 중 리처드 프래트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이면서 신약학을 사로잡는 대중적인 강연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리처드 크레이븐은 목회현장 경험에 풍부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있는 강연으로 목회자 및 평신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인물로서 '당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존하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성도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금번 세미나의 전체 강의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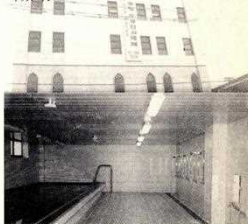
충현복지관 준공감사예배

폭넓은 이웃 사랑의 실천장으로

그동안 계속되어온 충현복지관 준공 감사가 마무리되어 이번 주내로 구청인가를 받은 후 준공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26일 예정). 금번 감사를 통해 충현복지관은 총 365명을 더 확보하게 됨으로 목욕탕, 미용실, 탈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실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9월부터 개방하게 되는 목욕탕에서 성인 장애인들은 목욕 훈련을 받고, 아동들은 수영강습을 받을 예정이다. 이 공간은 사랑방 및 타 기관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은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처우받아 수급자로서 제약을 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한편 준공감사예배는 1부 예배(설교:

재단이사장 김성관 목사)와 2부 축하 및 감사, 그리고 3부 시설관람 및 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복지관 시설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더욱 효과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2주년을 맞는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복음의 중심으로 살려는 헌신자들로 변화돼

주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본당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리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온다. 이들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기쁜 은총의 시간들이 오늘로 벌써 두 해가 되었다. 이를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예배에서 고동부친양태와 별첨찬양가 특별 찬양을 부른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젊은이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 새롭게 찬양대가 세워졌고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지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 젊은이들이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으로 수고를 담당한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매주일 2천원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들을 부린 자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4:19, 6:24). '젊은이예배'에 모인 이들 가운데는 이 음성을 듣고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헌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등, 대학, 청년부의 개별적 부서모임을 뛰어넘어 충현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언제라도 함께할 동역자의 모습으로!

이제 '젊은이예배'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 처음부터 땅끝을 바라보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해야 할 것이다. (김동후 목사)



제4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에

오늘 찬양예배시에는 99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이 거행됐다. 이번엔 학습세례식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유아세례자 27명, 세례자 36명, 학습자 21명, 입교자 12명, 그리고 개종자 2명 등 모두 98명이다.

경찰전도회

제3기동대 전도집회

경찰전도회는 8월 26일 제3기동대당당에서 전도집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다. 이 집회를 통해서 전·경장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고백되고 복음이 화평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시 간	8월 23일(월)	8월 24일(화)	8월 25일(수)
06:40 - 09:3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07:00 - 0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30 - 10:30		리처드 프래트 (5)	리처드 크레이븐 (5)
10:30 - 10:50		휴 식	휴 식
10:50 - 11:50	리처드 프래트 (Dr. Richard Pratt) (리플드신학원 교수, 미국 교파)	리처드 프래트 (6)	리처드 크레이븐 (6)
11:50 -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 14:00	개회예배	리처드 프래트 (7)	리처드 크레이븐 (7)
14:00 - 14:20	휴 식	휴 식	휴 식
14:20 - 15:20	리처드 프래트 (1)	리처드 크레이븐 (1)	매시예배
15:20 - 15:40	휴 식	휴 식	
15:40 - 16:40	리처드 프래트 (2)	리처드 크레이븐 (2)	리처드 크레이븐 (Dr. Richard Mark Craven) (웨스트민스터신학원 목회자 교육)
16:40 - 17:00	휴 식	휴 식	
17:00 - 18:00	리처드 프래트 (3)	리처드 크레이븐 (3)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리처드 프래트 (4)	리처드 크레이븐 (4)	

전도훈련원 · 선교연구원 제2학기 개강

전도 · 선교의 이론과 실제 함께 다뤄

전도훈련원의 충현전도대 99년도 제2학기 과정이 9월 8일(수) 개강한다. 강사는 김재철 목사이고,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교관 5층에서 진행되며 전도의 의의, 5단계 방법 등이 이론과 함께 실제적인 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전도의 침침함으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육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평신도 선교훈련과정을 통한 평신도 중 · 단기 선교사의 발굴과 파송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교훈련원 LMTC 2학기 과정이 9월 4일(토) 오후 5시에 메다니홀에서 개강된다. 2학기 과정 중 선교정당과정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들

(이사야 46:1-7)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는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1. 바벨론의 신들은 었드려집니다

(1) 바벨론의 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벨은 ... 느보는 ...”(1절)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로서 우상을 극진히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본론에 벨과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은 태양신입니다. 바벨론이 벨신을 섬긴 이유는 태양은 높이 떠서 땅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라지고 생명을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람으로 따듯하게 비추는 바벨론을 해할 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태양신인 벨을 섬겼습니다. ‘느보’는 사람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어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문예와 과학의 신입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보다 명명한 것은 느보신의 해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신의 보호를 받아서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느보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나라보다 지혜롭고 발전할 수 있다” 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다니엘 때의 느부갓네살왕의 이름은 느보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인데 느보신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나는 느보의 아들이며 자전적 계획을 잘하여 하는 일마다 승리한다. 바벨론 성곽을 보아라. 얼마나 설계를 잘하여 지었느냐?” 그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설계로 지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인데 태양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2) 바벨론은 우상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너희가 떠메고 다니신 ...”(1절)
이들은 태양신과 지혜의 신을 멀리서 섬긴 것이 아니고 온이나름 금으로 또는 나무로 두 신을 만들어 팔았었습니다. 백성은 그것들을 사서 자기네 집에 모신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들을 존중하여 여배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우상은 사람이 두들기고 깎아서 만든 수공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우상은 무능력하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있으니 ...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꾸부러졌고 그들은 이제 었드려졌으니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1-2절)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에는 느보가 지혜의 신이라고 하지만 계획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는 언어도 없고 신약관에 진행되는 활동도 없고 일을 하

친 완성품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패배를 당할 때에 우상들도 피곤한 짐승의 등에 실려 메대 바사로 끌려 갑니다. 우상들은 었드려서 우상 자체의 짐도 견디지 못하고 잡혀 갑니다. 우상들은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수록 손해만 당하고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어떻게 손해를 끼칩니까? 우상을 만들리까 돈을 들여야 하고, 신평과 다니라 자신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손해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악마가 그 위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백해무익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악독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필경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4) 우상은 섬길 것도 못되고 의지할 것도 못되고 부활할 것도 못됩니다

① 사람은 대개 무엇을 섬기니까?
첫째로, 높은 분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분을 받드는 것입니다. 어려본, 돌이나 금이 사람보다 높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상이 사람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고마운 분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것은 신세를 많이 지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고마워서 부모님을 섬깁니다.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이 고마워서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이 인생에게 무슨 고마운 일을 하였다고 섬깁니까?

셋째로, 무서운 것을 섬깁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면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보가 돌이 어떻게 나를 때리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데 무서다고 었드려 절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② 우상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있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가 있는 대상에게 의지합니다. 자기보다 돈도 자기보다 많고 모든 것이 자기보다 나은 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지혜롭고 재산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는데 나무 앞에 었드려 절을 하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③ 우상은 우리의 사정을 부활할 존제가 못됩니다.

자기의 사정과 문제를 알아 줄 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분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나의 사정을 해결해 줄 만한 권능이 있는 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부탁해야 합니다. 나무나 돌로 조작해 놓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너는 내 문제를 다 알지 않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공합을 보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멸망받을 구습입니다. 결혼할 때에 택일을 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습에 속한 것을 아깝게 여기어 합시다.

2.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① 우리를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답게 이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는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3-4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늙기까지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② 비교할 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깎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갈다 하겠느냐 ...”(5-7절)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사를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바벨론이 왕성한 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번영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상보다 비할 데가 없는 참 하나님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우상의 무능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몰락한 바벨론의 신들은 자신들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므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안아보아야 합니다. 나무나 고마워서 안아보아 우물러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고집을 세우지 말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순종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나고 재미가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질과 명예에 손해가 나고 고생스러우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사꾼이 물건을 놓고 흥정하는 식의 신앙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익이 나가나 손해가 나가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괴롭거나 즐겁거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장사꾼의 식이 아니고 조곤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상을 미워하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3)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재미도 없고 손해만 나고 바보 소리를 듣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 가지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첫째로, 의인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승리자의 복을 받습니다. 열 핏병으로 앓아눕혀 있을 때에 열마루에 오면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그만 승리하여 우뚝 서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간신들이 이긴 줄로 착각했으나 이튿날 아침이 되고 보니 그들의 자손까지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입니다.

셋째로, 성공의 복을 받습니다. 성공이란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3. 절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벨신, 느보신을 섬겼습니다. 한두어는 돈 총리에 들어가기는 입구에 난구로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라는 수호신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시킬 때에 택일을 하고 공합을 보는데 이런 우상의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지으시고 나무에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품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성공자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광 목사

십자가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오늘 본문 앞의 두 절에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할례받은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비추어 보자면, 평판이 자자한 기독교 교인을 받았거나 박사학위를 딴 후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박식함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을 늘어놓는 현대의 지식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단호히 꾸짖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 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단순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중에는 전적으로 축복받은 의로운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순전하게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도 아니고, 주님으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이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으로 돌린다면 그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적자들

충성된 모습으로 진리를 붙들고 행할 때, 우리는 대적자들을 힘있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진리로 행하지 않게 되면 교단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덤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십자가의 대적자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격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로 타올라 십자가의 주제를 지체없이 꺼냅니다. 정말로 올은 일을 행할 때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력있는 악의 공격에 대하여 진리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육체를 자랑치 말라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풀리셨습니다(히 9:2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에 회개와 기쁨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는 천국을 보충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되는 이유,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세상과 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전신실 면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험박과 위협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가난한 자들과 친근히 지내는 우리도 인해 그의 이름과 명예는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의 행위와 동기는 해괴되고 그의 지식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멸시받고 그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그의 방법과 습관들은 비정상적으로 활동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이 낙오된 자로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지도 모릅니다. 성도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광을 거두어간 것으로 인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소원

안타옥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황제 트라야노에 의해서 로마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열매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자신의 순교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구명운동과 같은 대책을 세우자 말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죽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그 험한 십자가가 쉬워집니다. 그 거친 십자가가 부드러워집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쓴 십자가가 달콤해집니다.

우리의 면류관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부요함이고 그리스도의 수치는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초점을 모으십시오. 곧 사라지고 말 땅에 속한 것을, 이 땅의 영광을 좇지 말고,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이라는

말 속에는 가장 단순하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수대와 똑같이

수치스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주인공을 향해서

바울은 모든 경의를 다바쳐 영광스런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값없이 주시는 청의의

은총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때, 세상도 우리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위에는 십만이 임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이제 이 세상의 십만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허물을 심판할 때 누가 과연 세상의 가치와 의 건에 신망을 쏟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가르침들은 멸시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도 무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영예와 보람을 역시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쫓겨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유행은 사라지고 그 위협적인 물결도 갈 곳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안에 은 혼돈과 죽음만이 남게 될

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이라는 말 속에는 가장 단순하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수대와 똑같이 수치스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주인공을 향해서 바울은 모든 경의를 다바쳐 영광스런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 값없이 주시는 청의의 은총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고후 5:19).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로 구세주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천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요 15:13).

세계 선교

2000년에 파송할
단기평신도선교사 모집

선교위원회에서는 더욱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선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같이 단기 평신도선교사를 모집한다. 소명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파송국가	인원	지역에 필요한 특기사항
스리랑카	2명	어린이사역, 컴퓨터교육, 제자양육
수 단	3명	의료(간호), 컴퓨터교육, 이학교육
수리남	2명	어린이 사역, 심방 및 제자양육
인 도	2명	학원전도, 제자양육
케냐	1명	의료(간호) 및 제자양육

한편, 파송 조건은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기 평신도선교사(LMTC) 자격증 소지자 혹은 MTT자격증 소지자란, 2000년 12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도 가능함) 중 선교위원회에 의해서 선발된 자이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왕복 항공비 및 선교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역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6번)로 문의하면 된다.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복음이 누룩과 같이 퍼질
그날을 바라봅시다

추진 회(청년부)

스리랑카는 '하루다운 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인도 밑에 있는 눈을 방울 모양의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누룩과 같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저희는 처음에는 놀란 남았다는 것에 위축되기도 했으나 먼저 귀국하는 대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저 조용할 따름이었습니다.

델라니와 니르말리의 성장과 동역, 한세 가정과 다저트 가정과의 친밀, 새로운 협력자들의 발견. 그러나 이 중에 가장 기쁘고 기대되는 일은 델라니와 니르말리와 함께 속속하면서 예배와 성경공부, 교제 등을 통해 그들을 성장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불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의 구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델라니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의 많은 문제로 인해 명히나 않아 있는 때가 많았으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녀는 표정도 밝아지고 명하니 이는 대신 성경을 읽고, 집안 청소도 도와 주고, 농담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는 등 점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르말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파위, 성경의 인도에 대한 간증에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성경에 의한 생활을 배운 후에는 찬송가를 부르고자 했을 때 먼저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이다"라며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들과 함께 떠난 뒤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동역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들도 선생으로서, 아이들의 성경에 스티커 붙이는 것, 성경구절 찾는 것, 주기도문 암송, 퀴즈, 설교 봉독 등 우리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델라니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오지만 말씀에 더 깊고 빠르게 깨달으며 적극적인 성격과 사교성이 많은 반면 니르말리는 얌전하면서도 섬기는 일을 참 잘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으로 깊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키우실 것이며 또한 복음은 누룩과 같이 스리랑카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스리랑카는 참으로 준비된 아름다운 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위한 헌금 자제

손미 회(전도사, 예배위원회, 10교구)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보면 설교 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을 맞이할 때면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헌금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의 일부분이므로 드림의 자세로 드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제사역에 있어서도 헌금 교육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를 통해 배운 그대로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 실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중 어느 한 날은 한 달 동안 배울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 미리 하나님께 드릴 각종 헌금, 즉 십일조·선교·주일·감사·헌금, 출생, 결혼 등 헌금 등을 구분하여 준비하여 주었다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시각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주 전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헌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헌금에 대해서는 금하다고 하여 다른 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랫돈은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드러는 형편과 신앙에 따른 믿음으로 드러져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 읽는 시간에 말씀을 눈으로 함께 읽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헌금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헌금 수권하는 시간에 헌금을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는 일들로 인하여 수권시간이 지체되어 신장적인 절차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날 드릴 헌금은 성경적 태도 앞장에 놓여 두었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꺼내어 감사한 마음과 정성스런 손길로 드러야 합니다. 헌금 시 대부분이 헌금을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일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 후 많은 성도들이 헌금 권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을 통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십일조와 주일헌금을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여 지내는 동안에도 주의 자녀로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믿을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위하여

조옥 경(청년부)

십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약속의 계명이다. 옛날 동안은 육신적인 일에 바쁘게 생활했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거룩하며 복된 날로 여기는 말씀이다. 나 역시 토대신앙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릴 적 교회학교 다닐 때는 주일에 옷 입는 것, 머리모양, 신발을 전날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절대 주일날은 용돈을 못 썼으며 사야 할 물건이 있으면 평일에 전부 샀다. 그만큼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그리고 겸허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어릴 적에 배운 교회학교 교육이 나의 의식 속에 지금까지도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 교회학교 선생님이 감사하고 싶다.

그러나 요즘엔 세상이 좋은 탓인지 살기가 편한 탓인지 과거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호통을 치지만 엄한 속성이 없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그 엄격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토대신앙의 모습을 이미 점점 잊혀져 간다. 소비없는 옷, 끈 없는 샌달(슬리퍼),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발, 형용어인 머리, 예배 시작된 지 10

분쯤 들어오는 교인들(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늦는다), 핸드폰 소리, 산만한 잡담, 껌씹는 소리, 성의 없는 헌금, 예배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치장,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배의 경건성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바로 생각하자.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과 교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배의 시간'이 아닌 '참여의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어떤 대 교회에서 그토록 무심코 엄격하고 혹독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사회에서 받을 수 없었던 '인성 교육'과 '예절 교육', 더 나아가 '도덕'과 '윤리' 교육까지도 크리스천들이 만들어 내어야 할 사명이기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책임을 동반한 빛과 소금이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



정년1·2부

이 나라의 땅끝 경주

백 명 자(정년2부)

아름다운 섬
라베도를 그리며

김 정 민(정년부)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와 사미니즘 등이 복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곳곳에 우상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어 늘려 있는 경주땅. 마지막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상과의 싸움이며 무슬렘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경주 또한 영적으로 땅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여름 청년2부에서 처음으로 경주에 농어촌전도 사역을 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몇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왔던 터이로 작년에는 그곳 주민들과 접촉점을 마련하고 예수님을 주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안겨 주자는 뜻에서 봉사 위주로 사역을 했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

작년에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금년에 많은 열매로 거두어 주셨다. 금년에는 봉사보다도 축조전도에 집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사역지 주변 마을 20여 가구로 예수님을 믿는 분은 8%도 안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불교신자였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았고 대대로 내려온 부처를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5분이라도 시간을 내달라며 매달렸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음 속으로 그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들도 복음을 듣고는 점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매일 열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고 마지막 날 예배당에 초청받은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3박4일이라는 짧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과 겨울 사역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번 사역을 통해 정말 외져서 추수할 곳이 많음을 보여 주셨다. 부업일부터 피아는 반주까지 전무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각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울분과 분노와 모든 모욕을 숨기시고 필요하신 부분들만 드러내 주셨다. 그렇기에 사역을 끝낸 우리팀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 1년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서서 경주 땅의 모든 우상당신을 가 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

7월 26일 아침 우리는 라베도 교회로 도착했다. 사모님께서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한국으로 가셔서 "휴가를 받아서 디어이 왔군요" 편지 받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셨다.

나는 눈물이 핑도는 것을 겨우 참았다. 완고하게 휴가를 못주겠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결국 허락하셨던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기도로 먼저 만나게 된 우리는 처음 대면인데도 서먹함이 없었다.

오후에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이장님댁에 먼저 갔지만 이장님은 안계셨다. 우리는 작은 쪽지와 함께 사탕 두 봉지를 놓고 발걸음을 옮겼다. 주민 인사를 마친 우리 팀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주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았나.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저녁을 우리가 대접받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배편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목사님은 사흘리 식사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났다. 목사님은 여전히 사라지셨다 나타나곤 했다. 축조전도를 하던 우리는 동에 댈면 서에 댈면서는 목사님을 도한 말잔이었다. 분명히 이 집에서 일손을 돕고 계셨는데, 다른 곳에서 또 발견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냥 남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홍 기 숙(정년2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 가본 언덕 위에 철암교회에 있다. 외관상 얼핏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닌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77년 12월에 세워진 이 교회는 매주일 30-35

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우리팀은 첫날 태백(석탄발전관) 담방을 시작으로 태백 전도의 길에 올랐다. '크게 밟다'라는

지령이 주는 의미처럼 거리의 많은 비어 있는 집들과 아울러 길게 기다란 학교 등의 건물들을 통

해 한때 활기차고 번창했던 시절의 태백을 재발견하고 있다. 태백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은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

"주님! 이태백에 주님의 살아 있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2인 1조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가가호호 축조 전도를 실시한 결과 우리 앞서 예비하고

고 실행했서는 하나님의 섬사람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절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허락하셨던 할머니, 처음엔 복음을 거부했으나 교회에게

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도 놀라워하시던 70대라고 보기에 너무나 젊어 보이시던 할아버지

까지 이르기까지 무명의 절까지 찾아서 전도하시던 집사님의 여호수아와 같은 대담함,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

모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신 지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졌던 기도와 평가회를 통하여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은 그들이 사



김정민 자애

바른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수 있었다.

처음 우리는 라베도에서 일손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갔다. 그런데 개인 뜻과업뿐만 아니라, 공동 뜻과업도 끝난 사실상 우리가 들어 없었다. 그래서 주민인사를 하고난 후의 평가와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조전도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우리는 라베도에 가기 전부터 좋은 날씨에 대해 많은 기도를 했다. 나는 좋은 날씨만 햇볕이 내리쬐는 최강한 날씨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간 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기까지 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사위기에서 싸우고 쏟아지는 폭풍전을 때리는 빗방울이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런 날씨에서 그런결과 당연하다는듯이 마을주민들을 집을 지키고 계시다가 우리의 방문을 받으셨다. 팀원 중 한 형제가 "축조전도에는 비오는 날씨가 제일이요" 한다. 날씨에 대한 나의 황홀한 착각이 바로 잡히는 말이었다.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축조전도만 나가려면 가랑비로 변하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했다.

나는 두려움이 많다. 특히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이

무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살아온 년 동안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축조전

도를 나갈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 그

래도 무엇이 팀장인데 나의 막막함은 이

무 따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

가 담담하게 말씀을 전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도 있었지만 서

울에서 기도를 파송하고 끊임없이

이 기도해 준 분들의 있었기 때

문인 것 같다. 우리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오기까

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물품

통진 기도의 후면 덕분에

에 나와 팀원들은 비록

초보 전도자들이었지만

힘을 얻어 담담히 말씀

을 전할 수 있었다.

한여름밤의 꿈 끝난 3

박4일의 여정이 끝나고 4

일째 아침에 우리는 바다

안개를 가르고 달리는 작

은 배에 몸을 싣었다. 한참

을 물소란만 들으며 안개 속

을 달리던 우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는 배가 있었다.

목사님이었다. 조도까지 같이 가

고 싶어하셨다. 그리고 상선

을라서는 우리에서 멀리 강변으로

로 우리의 배를 이끌었다. 언

초부터 재정적이지아도 하셨는데 말이다.

우리는 배를 주고 오라는 목적으로 라베도로

갔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풍성함으로 돌아

왔다.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성경연구원 강의 안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또한 **효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총을 8월 29일 개강하는
성경연구원의 여러 강의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크로스웨이2권(오전 10시)
조준원 목사

크로스웨이 2권 과정은 구약 성경의 각권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크로스웨이가 성경 공부의 주된 특징은 그림을 통한 성경의 이해에 있으며,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성도가 이제는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감격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오전 11시 30분)
정간식 목사

자신의 현실이 초라해 보입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이 좋았고, 또 자랑할 만했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과 삶은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학개서를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노의 조라함을 열쳐버릴 수 있는 힘, 우리가 이미 소유한 영광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두 손과 발에 붙여 주는 그 힘, 그리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학개서에 있습니다.



크로스웨이3권(저녁 7시)
차변준 목사

이번 학기에도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 시간에는 주간을 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장인들, 수소의 그늘 하에 관심 가져주는 성도들을 위하여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한 이 강의의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성실한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저녁 7시)
이준경 목사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영적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니 바울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타가 온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크로스웨이1권(오후 1시 40분)
김동석 목사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크로스웨이1권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각각의 내용들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성실한 신앙 훈련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강좌에 신청해 주십시오.



크로스웨이2권(오후 1시 40분)
박경한 목사

크로스웨이2권에서는 구약 가운데 나타난 메시야의 예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에 연구하게 됩니다. 구약은 그 언약이 너무도 방대하고 오랜 역사의 장 가운데 펼쳐졌으므로 약간 오해 생략할하고, 성경공부를 한 사람도 구약성경의 중심 사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크로스웨이2권 성경공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 맛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크로스웨이3권(오후 1시 40분)
전준환 목사

크로스웨이3권 과정은 신약성경 각권을 개괄적으로 다루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열어 줍니다. 이미 1, 2권을 수료한 자들뿐 아니라 신약성경을 전반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그가 곧 삶의 크로스웨이, 즉 십자가의 길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의 잔치에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레위기(오후 1시 40분)
이도무 목사

구약, 특히 레위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배우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레위기의 제사, 절기, 절결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레위기 공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성의 계시와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한 예배와 삶을 같이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거룩한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역대기상·하(오후 1시 40분)
김진식 목사

역대기는 족보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의외로 족보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족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나타난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밝히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그리고 구약 속의 복음의 바다로 함께 항해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스라서(오후 1시 40분)
정혜석 목사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곧 고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부어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였던 역사의 속의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마가복음(오후 1시 40분)
정현민 목사

마가는 당시 정치적 박해와 이단 사상이 출현하여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 자신이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것 같습니다. 16주 동안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어성경본(오후 1시 40분)
송현창 장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해보니 저 구를 한바퀴 돌아 도달하는 내 이웃나라가 곧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개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혼 구원에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일어성경본에서는 일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국 교황에 앞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며, 일본 선교에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일본어로 배우고 가르침으로 선교 지방성교에 일본 이해의 좋은 기회와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야고보서(오전 10시)
김동하 목사

야고보서 공부를 앞두고 이 말씀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들의 어그러진 삶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길여만 가는 죄의 밭과 성난 물결 설레는 바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진리의 동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삶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크로스웨이4권(오전 11시 30분)
이승학 목사

이번 학기에는 신약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천연의 슬라이드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할 크로스웨이1권 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학년합니다.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를 한눈에 알고 싶습니까? 크로스웨이1권을 공부하십시오.



디모데전후서(저녁 7시)
서관진 목사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교인들을 연단하여 교회의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가장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목회서신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지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건실한 교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로스웨이4권
<김승학 목사>
(수, 오후 1시 40분)

김성환 목사 >
(목, 저녁 7시)

가장과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간파자 어려운 세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크로스웨이 4권은 딱딱한 고린도 어려운 성경문제를 공부하는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세 생활의 창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하여 성경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체들소식

지체들 소식

영아부

믿음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 아기들

영아부는 예배 후 만들기(종이접기) 시간을 가져 아기와 엄마, 아빠가 함께 하나하나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두어 예쁘게 접어다보니 무더운 여름을 식히는 장식을 부채를 완성하였다. 만든 부채로 서로서로 더위를 식혀주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선생님이 아기를 아기는 엄마를 ... 하나하나의 자녀인 영아부 아기들은 이 더운 여름을 말쑹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두위 이기게 한 두 차례 교사특강

복음이란 단어를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해준 8월 두위, 십한 두위는 자칫 사람을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유년부에서는 해이해지기 쉬운 여름철 교사들의 바른 자세와 영적 각성을 위한 교사특강을 2주 연속으로 시행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의 바른 자세'에 대한 장용희 4과 과장님의 강의와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강철형 부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사들은 자칫 두위로 흐트러지던 마음을 다 잡았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교사,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사, 성경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교사, 전도에 열심인 교사, 어린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사, 절대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교사가 되기'를 다짐도 다짐하였다. (윤숙희 통신원)

영어교육부

천사의 집 방문, 이웃 사랑 나누기

지난 8월 14일 조동부, 중교동부, 청년부와 학부원 55명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쌀과 옷 등 여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었다. 김병수 전도사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와 찬양으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시설인 천사의 집 구구구석을 청소하고 작은 발을 가꾸며 식기를 소독하고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귀한 땅방울을 흘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하루를 지냈다. 다음 방문할 때에는 좀더 많은 지체들의 구제의 손길도 기다린다. (김석영 집사)

수화를 배운다

하반기 수화교실이 개강됩니다. 수화는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손발(手話)로서 35만 농아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이웃에 있는 농아인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개설강좌:

주말반(초급, 중급, 고급)
15:00-16:30(교육기간: 20주)
평일반(초급)
월, 목요일 19:30-21:00
(교육기간: 12주)

·개강예배:

9월 19(주일) 15:00 교육관 109호
·선정 및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교육관 1층)

군인선자의 1차 심방을 마치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김정 순(은회지사)

연초에 진중 세례식의 수세자들 중 미래 우리 교회 전자로 돌보라는 명단을 받고 그 가족과 통화하고 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비전 2020운동본부로부터 심방일자도 통보됐다.

7월 8일 첫 심방날짜다. 인원은 13명이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비록 많은 사단이라 해도 대개 다르고 소대가 각자이라 사전준비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바깥진 장로님은 직계는 5명, 맡게는 9명의 군복남들과 사전에 일일이 전화연락을 하셨는데 단번에 연락되기가 어려웠다. 위치를 확인하고 심방대였다. 심방 전날 인원수에 따라 각각 선물을 준비하는 일도 출거였다. 이렇게 시작된 심방은 15일에 14명, 22일에 16명, 29일에 10명이었다. 불과 4월밖에 안된 심방이었으나 7월 한달을 다 채운 버린 것 같았다. 반반 바 은혜와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심방을 통해 군복남과 사병들의 노고와 얼마나 큰 피로로 누릴 수 있었다. 첫 심방때 우리팀은 원주로 갔는데 시중에 몇몇 나쁜 사병은 1명뿐이었다. 목사님께서 사전에 여러 차례 전화로 부탁하고 약속도 받았으나 불교도인 대대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 정중하게 재삼부탁하였는데 1시에 겨우 2명의 사병이 군복들과 함께 도착했다. 군인선자들의 주일성수도 어렵겠구나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우리팀은 두번째로 간 곳은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 안에 있는 침철산골이었다. 우리가 군복남과 함께 도착하니 이미 연락을 받은 군복들이 2명의 군인선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1명은 GOP관리 못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서이나 참 진지했다. 한사람씩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작별을 하는데 약속하는 손에 힘을 주며 웃는 얼굴이 지워지고 없었다.

심방대원들의 전도열기는 대단했다.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간증을 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식사를 하면서도 동생들 대하도록 친절하게 먹을 것을 챙겨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돌아와서는 그들 가정에 일일이 전화를 하는대 벌써 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단다면서 무척 고마워하기도 했다. 몇 주 전에 유가족 한 명 형장은 3부예배를 드렸던 서군전도회 사무실로 찾아왔다. 무척이나 반가웠다. 8월 초에 재대하게 되는데 그랜 어머니도 모시고 오기로 했다.

군 복음화는 민족의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이 나라의 희망찬 젊은이들에게 군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수백명의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다. 우리 모두가 시대적인 사명의 대열에 서서 함께 행군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고 싶다.

제3회 전국전양대지도자강습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찬양대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

우리 교회 주최로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전양대지도자강습회가 열렸다. 올레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강습회에는 가까운 서울에서 열리는 제주도에서도 20명쯤은 1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참연인원 193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겨울 강습회와 주로 성악 위주였던 이번 강습회는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강습회였다. 그래서인지 전국 교회의 반주자와 지휘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번 강습회는 이분들의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찬양대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1회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다음 강습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실제 찬양으로 봉사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고마워하였다.

이번의 강습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많은 소고가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면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들과 모든 일의 진행을 맡은 실행위원들과 도우미들의 헌신 때문에 강습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 보자.

"분위기가 너무 진지했습다. 많은 분들이 찬양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 열성적이었습니다. 반주 유행을 비롯하여 찬송가 반주를 실용화하여요. 영적인 찬양을 이끌어 나가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백금구 가브리엘찬양대 반주자, 찬양대지도자강습회 강사)

"행진이 어려운 때에 불구하고 참여하신 많은 열성적인 참가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봉사자 이진용)

"우리 교회의 새 본의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2회째 참석하고 있는데 강습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전남 금호교회 최문수 집사님)

"지난해 참석하신 분의 권유로 처음으로 참석하였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찬양을 드리라는 가르침이 인상적이었고 강사님들의 헌신된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안동 동문교회 류예경, 김경남 지휘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찬양을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서울 왕십리교회 김순혜 지휘자, 권사)

"찬양대원인 고모를 따라 왔어요.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부산 강림교회 조동부 5학년)

(정연희 지사)

하늘에 올리는 편지

하나님, 제 이름은 ○○라고 합니다. 저는 나쁜 죄를 지어 소년원에서 반성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행상과 좋은 집사님들을 보내 주셔서 제 마음을 주님께 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목사님의 은혜 깊은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보내 주셔서 저를 바로 잡아 주시고 제가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영접하려 했으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 작고 연약한 몸과 죄를 갚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제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많이 반성하고 새롭게 변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고 의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무질서한 생활과 방탕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또 주위를 위하여 애쓰시는 총현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여름성경학교 무사히 아무일 없이 끝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올립니다. 아멘.

신촌중학교에서 죄인 ○○가

* 지난 8월 9-13일에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에서 실시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한 재소자가 쓴 기도문이다.



주요 측정 항목			
구분	시간	장소	
주요예행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하계, 목요일 제외)	본당
	IV	오전 1000(하계 제외)	본당
	V	오전 300 (월요일 제외)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쪽인기(Church Hall)
현장예행	오전 500	본당	
수도예행	12:20 ~ 11:00 (토, 주)		
교도집회	오전 73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640	본당	

주말 예배	오전 11:00 (쉬, 복귀자 동시영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복귀자 동시영역 예배)	본 당
V	오후 3:3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미전 가나산(Canada)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오 예 배	12:21 noon II 오후 7:30	본 당
금 오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 계 가 도 형	오후 4:40	본 당